

18과 다니엘의 세 친구 - 지영준 전도사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나머지 삶을 살게 하신 것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허락받은 이 나머지 삶을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헛되이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 직분을 하나님 앞에 이루고 하나님을 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참으로 배울 수 있는 겸손을 허락하시고 가르치기 이전에 배울 수 있도록 항상 우리 마음 지켜주시옵소서. 시종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이사야서 39장, 이사야서 3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39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39:6~7[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또 네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일찍이 성경에 예언 된 말씀들이 우리는 성취되는 것을 항상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배우는 다니엘의 그 세친구의 풀무불 사건은 이미 성경 속에 예언 돼 있었던 사건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이루어진 사건 속에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 유다의 왕족과 귀족중에서 몇 사람들을 끌어다가 아주 좋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귀족의 자녀로 태어나서 강대국 바벨론에 포로로 간 상태에서 좋은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이 사건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망국민이 되었고 온 백성은 흩어지고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온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들은 이미 성경 속에 예언 돼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죠.

열왕기상 한 번 볼까요? 열왕기상, 열왕기상 9장입니다. 열왕기상 9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이미 나라가 망하기 전 몇 백 년 전부터 솔로몬을 통해서 이런 예언이 이루어져 있었죠.

왕상9:6~9[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

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 거리가 될 것이며 이 전이 높을찌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 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기므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주 오래 전 솔로몬을 통해서 이미 망할 것이라는 것 다른 신을 섬겼을 때에는 망할 것이라는 것이 기록 돼 있었고 그것이 실제 이루어 졌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5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유다가 망하기 전 좀 더 가까운 시기에 예언 돼 있었던 말씀이죠. 예레미야 5장 15절. 렘5:15[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보라 내가 한 나라를 원방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바벨론이죠? [곧 강하고 오랜 나라이라 그 방언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렘5:17[그들이 네 자녀들의 먹을] 17절입니다. [그들이 네 자녀들의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네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네가 의뢰하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한 나라를 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가 너희들을 파멸 시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미 예언 돼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이루어진 그 시대상황에서 오늘의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먼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보시면 단1:1~[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으니 삼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열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첫 번째 침공 때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단1:3~4[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이렇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바벨론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첫 번째 침공 때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것을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바뀌어 지게 되죠. 1장 7절. 6절 7절 보면요 단

1:6~7[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다니엘이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은 심판 하신다 이런 뜻이었죠. 그런데 벨드사살 이거는 너의 보호자는 벨신이다. 이렇게 믿음이 바뀌어져 버리죠. 바알신, 벨신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꿨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하나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름이 사드락이라고 바뀌게 됩니다. 태양신에 의해 비침을 받는 자라는 뜻이 사드락입니다. 그리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미사엘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름이 이제 메삭이라고 바뀌게 됩니다. 메삭이라는 것은 너는 이스탈의 종이다. 이스탈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스탈이라는 것은 땅의 신. 욕망의 신 이런 것을 뜻합니다. 이런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이름이 아벳느고 너는 느고신의 종이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들은 이미 망한 나라 망국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귀족의 자녀였어요.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끌려온 나라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일신의 영달과 입신양명을 통해가지고 좋은 자리에 가고 호위호식하며 삶을 마무리 할 수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나라는 망했어요. 그들은 큰 기대를 갖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만을 위해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러한 삶에 대해서 탓하지는 못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변절했을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 역시 변절 내지는 변질 된다 할지라도 누가 탓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변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생각을 좀 해 봐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시간이 지났는데 발효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부패한 것을 썩었다고 그리고 발효된 것을 익었다라고 얘기 합니다.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시간이 가면서 점점 썩어가는 사람이 있고 점점 발효되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익어가는 사람이죠. 이것들 앞에서 우리는 좀 더 교훈을 좀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들입니다. 선택입니다.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발효되기로. 썩지 않고 익기로. 자신들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선택들에 의한 존중을 보내줘야 합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곧 나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운명이 있다는 걸 아

십니까? 운명은 그냥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운명은 내가 선택한 것이 곧 운명입니다. 난 가만히 있었는데 운명이 몰려왔다가 아닙니다. 오늘의 나의 선택들이 나의 운명이 되는 겁니다, 안 적으시네요? 이거 참 중요한 말인데. 저도 참 오랜 시간 끝에 깨달은 겁니다. 별로 관심들이 없으신데. 저는 이걸 깨닫고 참 좋았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선택한 것이 곧 나의 운명이다. 곰곰이 좀 생각해보세요. 참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변질되지 않았을까? 왜 그들은 부패되지 않았을까? 왜 썩어버리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로 7절 말씀인데요. 곰곰이 생각하면서 읽어 보겠습니다. 3절 단9:3~7[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와 간구에는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엿보는 대목이죠. 가만히 앉아 있다라고 해서 기도와 간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와 간구를 결심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는 우리 신앙인들이 배워야 할 대목이죠.

4절 단9:4~5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들의 패망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짚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단9:5~6[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정확하게 짚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단9:7[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데 있는 자나 먼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 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아주 중요한 대목들입니다. 범죄라는 겁니다. 죄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 사람들은 적어도 그들의 나라가 망한 것이, 그 원인이 바로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패역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깊이 깨달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방부제의 역할을 한 겁니다. 죄 때문에 망했구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했구나 라는 그 깊이 있는 인식은 우리를 범죄함에 대해서 방부제 역

할을 함으로써 우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질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변질되지, 부패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죄에 대한 교훈과 경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죄때문이구나. 우리가 말씀을 버림이구나. 이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사실이고, 우리가 가르치는 메시지 속에서 이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죄 때문에 망합니다. 모든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범죄함입니다. 말씀을 거부한겁니다. 말씀의 순종을 거부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입니다. 우리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썩은 곰팡이와 같이 우리를 변질시키는 겁니다. 바로 그것에서 지켰을 때 그들이 변질되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겁니다.

풀무불 사건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장이죠? 다니엘서 3장입니다. 3장 1절. 단3:1[느부갓네살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육십 규빗이요 광은 여섯 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지금 이 사건이 왜 발생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느부갓네살의 꿈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거죠. 2장을 보시면, 2장에 그 꿈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2장1절에 2년에, 느부갓네살 2년에 꿈을 꾸어가지고 아주 번민하게 되었고 이걸 가지고 이제 꿈도 가르쳐 주지 않은 상태에서 해석하라는 그런 명을 내리게 되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자들을 모두 모으게 되고 그 사람들은 이제 해석하지 못하니까 죽여버리게 되는 그런 사건들 속에서 다니엘이 등장하고 다니엘의 꿈 해석을 만나게 된다는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 해석이 쭉욱 되어지는데, 38절. 2장 38절 보시면요 단2:38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곳에 있는 것을 무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금신상이 나왔는데 느부갓네살이 금 머리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교만이 작동 되는 겁니다. 금 머리라고 했지 금 전체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작자는 자기가 금 머리인데 금 신상 전체가 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금 신상을 만든 거예요. 교만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교만한 겁니다. 이 사람은 교만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 교만이 오늘의 이 사건을 불러오게 되죠. 그러나 역전시키는 하나님. 하나님이 역전시켜버립니다.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을 꺾을 수 없어요. 이 교만한 왕. 살아있는 교만에게 이 세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도전

합니다. 그리고 기어이 이겨내고 말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죄입니다. 교만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볼 것을 못 보게 합니다. 어리석게 만들죠. 바로 이 교만함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6절을 3장 6절을 한 번 보시면요. 3장 6절. 단3:6[누구든지 옆드리어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매] 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8절. 단3:8[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아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느냐] 그리고 14절 단3:14[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그리고 15절을, 중반 절 보시면요 15절 중반 절에 단3:15[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 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아주 심히 교만한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말과 바로 2장의 47절 말씀과 비교를 잠깐 해보면요. 2장 4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단2:47[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재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지요? 신중의 신이다. 참된 신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는 말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 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라는 것이죠.

그 전에 2장에서 했던 말들은 감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거짓입니다. 가짜예요. 그는 진정 말씀에 대한 체험에 바탕을 둔 신앙이 아니예요.

상담을 하다보면 체험, 신비한일, 특별한 어떤 느낌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럴지 않습니다.

체험은 무너집니다. 경험은 다 달라요.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각 사람의 체험과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면 되지요. 중요한 것은 체험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체험, 말씀에 대한 경험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실제 체험한 경험들이 진정한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고백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하는 과정 속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좌절들 갈등들. 그 속에서 지켜낸 신앙. 이것만이 진정한거예요. 어떤 현상에서 보여 지는 순간의 감정이 결코 믿음,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실위에 서 있어요. 성경의 사실. **이따금씩(23분26초, 저는 이따금씩 이라고 들리는데 한 번 확인해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조사하고 정확하게 정말 믿어봅시다 라고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담의 과정 속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어요.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흔히 나오는 얘기가 느낌이나 감정이예요. 하나님을 느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꼈다. 하나님은 나를 보살피신다고 느꼈다. 그런 느낌이나 감정을 얘기합니다. 파고 들죠? 아닙니다.

느낌이나 감정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내가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나름의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실입니다. 사실. 그 쪽으로 파고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광주에 가는 버스를 탔어요. 오랜 친구 만나기 위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광주에 가는, 광주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버스에 타서 전화를 합니다. 친구한테. 잘 있었냐? 정말 오랜만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다. 3시간 반 후면 터미널에 도착하니까 거기서 기다려라 오랜만에 회포를 좀 풀자 라고 전화를 했어요.

자, 저는 광주로 가는 버스를 탔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는 즐거운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전화가 끝나자마자. 이 차 광주로 가는 버스 아닌데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광주가 아니고 상주인데요? 제가 기사님한테 여쭙봅니다. 이차 광주로 가는 버스 아닙니까? 아닙니다. 상주입니다.

자 보세요. 저는 광주로 가는 버스를 탔다는 믿음을 가지고 탔어요. 그리고 아주 기분도 좋고 느낌도 좋았습니다. 맞죠? 믿음이 있었고 느낌도 좋고 감정도 좋았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죠? 팩트! 사실이 잘 못 된 겁니다. 상주로 가는 버스였어요. 그럼 다 무너집니다. 믿음과 감정이나 느낌은 그 순간에 무너져요 팩트가 달라지는 순간.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 사실입니까? 인간이 타락하여 죄인 이 된 것이 사실입니까? 죄인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심판의 구원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 돼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 아닐바에야 우리가 왜 믿습니까?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사실이기 때문에 목격자가 있고 목격자가 있기 때문에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 저에게 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이라고 묻는다면, 저는 딱 한마디 사실이니까라고 얘기할 겁니다. 무엇이 사실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등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죄인된 것이 사실이요. 죄에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요, 바로 그것을 대속하신 그리스도가 사실이요, 대속하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시 부활하실 것,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실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실의 신앙 속에 서 있는 거예요. 믿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진정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있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음을 주고 신앙을 줍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신앙 위에 서있는 사람들이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풀무 불 가운데로 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을 때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우리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해요. 죽음이 찾아올 때 구차하고 추하게 그 앞에서 조금 더 살게 해달라고 빌어서는 안 됩니다. 당당하게 맞이해야 돼요. 죽음은 나를 내 집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바로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진면목입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3장 16절이죠? 단3:16[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참 멋진 말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과 얘기할 것이 없어요. 영어 번역본은 그렇게 말 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하는 데 더 이상 마음을 줄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 줄여가면서 당신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라고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합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분명한 입장의 표명입니까? 우리 믿음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할 때 여러분 머뭇거리겠습니까? 머뭇머뭇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실 겁니까? 저는 당신에게 대답하는데 내 마음을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당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들은 몸은 자기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을지언정 영혼까지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바로 그 두려움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다보면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뿐이라는 사실. 내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내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 가게 됩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람이?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분만이 두려울 뿐이에요.

그들은 아주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입장의 표명. 너희 입장이 무엇이나? 제 입장은 이겁니다. 꺾어라 아니 꺾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 온대도? 예 죽을찌언정 꺾을 수 없습니다. 우린 당당히 우리 믿음에 대해서 선언해야 됩니다.

17절 단3:17[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참 멋진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 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17절에서 끝나고 그냥 18절 말씀이 없고 19절로 넘어가면서 간다면 우리는 약간의 신앙에 대한 오해와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신앙의 위험성입니다. 만일 이렇게 이렇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할 겁니다. 조건부 신앙이라고 그래요. 비록 던져 넣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건져 내실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18절이 있어요.

18절 단3:18[그리 아니하실찌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충분한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니다. 그리 아니 하실찌라도 라는 예산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찌라도 에는 자기의 죽음까지 포함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시고 나를 죽일찌라도 저는 섬기지 않을 겁니다. 충분한 예산이 세워진 사람은 부도나지 않습니다. 예산 없이 가다가 예산부족으로 못가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나는 여기까지 밖에 못해. 그리니 죽음을 두렵지 않은 인생이 필요한 거예요. 내 죽음까지. 내 생명까지 예산에 포함 되었을 때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는데 그것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는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흔들릴 때 없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이따금씩 흔들릴 때. 사람은 살다가 흔들려요 그러나 그 흔들림을 잡을 수 있는 건 말씀 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진동치 않을 나라를 바라보면서 잡습니다. 기준을. 온 세상이 다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다시 섭니다. 기준! 하고 딱 섭니다. 우리 형제님들 기준하시죠? 기준. 자매님들은 잘 모르실거예요 어떻게 흠어져 있을지라도 기준! 그러면 그 순간 그 사람이 기준이 되고 3절 종대 5절 횡

대 그 순간 딱 서집니다. 기준만 잡히면 서져요.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기준. 그 기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리 아니 하실테라도 제 죽음까지 제 생명까지 혹시 거두어 가실테라도 신앙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부 신앙의 위험성을 넘어선 신앙입니다.

눈에는 풀무불이 보여요 그러나 풀무불 다음에 우리 눈에는 죽음이 보여요 그러나 죽음 그 다음에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현실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불이 현실이 아니라 불 넘어가 현실입니다. 죽음이 현실이 아니라 죽음 넘어가 현실이에요 이 세상이 현실이 아니라 다음 세상이 현실입니다.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 열려질 영원한 세계. 그렇게 꿈에 그리던 그 세계. 그 세계가 펼쳐질 때.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현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의 현실. 절반의 진실일 뿐이에요. 진정한 진실. 늙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진실은 진실인 그 진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인생은 찰나예요 삶은 찰나입니다. 찰나가 있다는 것은 영원한 것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영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 속에서 무료로 사는 게 아니예요 영원히 그와 함께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면서 영원토록 그를 찬송하는 삶. 여러분 그 삶이 펼쳐질겁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5장 58절입니다. 58절. 고전15:58[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는 그 앞에 있는 모든 절들을 받는 단어입니다. 그 앞 있는 모든 절은 바로 이 그러므로와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그러므로입니까? 네 부활입니다. 부활의 아침이 있다는 겁니다.

15장 앞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게 뭘니까? 부활의 수많은 옛 씨들. 씨앗을 보라 씨앗이 열매를 담고 있지 않냐. 씨앗이 나무를 담고 있지 않냐. 그 작은 씨앗 알갱이 하나 속에 나무가 들어있고 열매가 들어있지 않냐. 나무도 보이지 않고 열매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씨앗 속에 담겨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작은 알갱이 씨앗. 그러나 그 속에는 모든 게 담겨있습니다. 씨앗은 나무가 되는 것을 염려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담겨있으니까. 애벌레는 나비가 될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속에는

이미 나비가 담겨있으니까 그래요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 세상 속에 영원한 것이 이미 담겨져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눈이에요.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있다. 그러므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장 3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33절. 히11:33~35[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네. 이 사건이 아닙니까?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풀무 불에 일곱 배나 더 뜨거웠던 그 풀무 불. 그들을 불들린 자가 타죽었던 풀무 불. 그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부활이 있었는데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구차해 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결코 구차해지지 않았습시다. 좀 더 살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구차하지 않았습시다. 하루를 살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구차하지 않는 삶을 그들은 추구했습니다.

결과 38절. 히11:38[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여러분 부활을 받아들이고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종말이라고 생각해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아침이 있고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오늘이라도 내 삶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면 네 가겠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더욱더 충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 그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하신 길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의 이야기들은 멋진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이야기들이 멋있습니까? 나에게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 편의 드라마예요. 그들의 이야기는 한 편의 노래요, 한 편의 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장엄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되 이렇게 지키자. 신앙을 지키되 이렇게 지키자 그리 아니하실찌라도. 하나님은 마술 램프 속의 지니처럼 우리의 장애물을 치워주

시는 분이 아니다. 비록 그것을 허락하실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가야한다. 그리 아니할찌라도.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당하게 얘기해 줘야 합니다. 한 편의 위대한 서시시가 아닙니까? 가르쳐야지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꿈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신앙의 꿈. 믿음의 꿈.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줘야 돼요.

시편 31편. 시편 31편 14절입니다. 14절 시31:14[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자 어떻게 그러하여도. 바로 윗 절 들이 있지 않습니까? 11절 시31:11~12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시 31:13~14[내가 우리의 비방을 들으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주는 내 하나님입니다 비록 그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당신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장애물을 없애주는 게 아닙니다. 통과케 하시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목자신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골짜기를 없애 주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불속에서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보라 세 사람인데 왜 네 사람이나? 함께 하신겁니다. 그 분이. 우리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43장 2절입니다. 사43:2[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없다고 안 하셨죠?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강이 없어 진다고 하지 않으셨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 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불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이 있고 강이 있고 불이 있고 불꽃이 있습니다. 없애주는 게 아니예요.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41장 10절입니다. 사41:10[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고난과 역경 두려움을 없애주겠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걸 약속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함께 하

겠다 라는 것을 약속 하신 겁니다.

그들이 신앙을 적극적으로 그 입장을 표명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표현 돼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선언 돼야 해요. 아주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은 선언돼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끄러운 겁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지 않은 거라면 우리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야됩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슈퍼맨이나 인조인간들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했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했고, 그리하여 이방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이방 우상한테 절하지 않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들은 특별하고 아주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특별한 힘을 간직하고 특별한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 신이다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걸겠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께 자기를 걸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그리아니하실찌라도 저희는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결단들을 참으로 귀하게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슴 속에 품고 그 품은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진심을 담아서. 얼마나 이 멋진 일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한다. 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야 될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비록 연약한 믿음이지만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마지막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기회들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과 친절로 이 직분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늘도 기쁜 마음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자리에 참석지 못한 선생님들 계시고 병중에 있거나 어려움에 처한 선생님과 그 가족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권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리 아니하실찌라도 이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각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